Daishin 증권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미국과 이란 휴전 협상 대기, 경계 심리 속 균형점 탐색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기대 심리 후퇴
- 미국과 이란의 협상 앞두고 경계 심리 유입, 여전한 불확실성
- 주요 업종: 반도체, 소비재, 방산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다음주 시장은?] 중동 리스크 완화 국면. 진통은 불가피

- 종전으로 나아가는 방향 = 비중확대 전략 &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술적 대응
- 매크로 지표 발표 및 통화정책 또한 변수
-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 불확실성을 상쇄할 요소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4 월 3 주차] 이란 전쟁에서 벗어나는 안도랠리가 시작되다

- 미국-이란 2주간 휴전, 종전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내비친 것. 2주 안 세부 사항 논의하는 '선 합의-후 논의' 해석
- 미국 타임라인대로 진행. 4.22일 이스라엘 건국기념일 주목. 2주간 양국, 종전 협상 과정에서 신경전 불가피. 협상술 측면 의미 제한
- 증시, 안도랠리 시작. 관전 포인트는 1) 전쟁 불구,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2) 美 26.1/4분기 어닝시즌 호실적 기대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Commodity

단기에 그칠 이란 전쟁, 다시 재개될 원자재 내 순환매

- 여전히 불안한 휴전, 합의 미이행(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 총공격 경고한 트럼프
- 그럼에도 단기 내 종전 가능성 유효, 양측 모두 실리 확보 시 군사 행동 철회 가능
- 재개될 원자재 내 순환매, 비철금속 비중 확대, 에너지는 하락 시 저가 매수 권고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Earnings Preview] 자동차/부품: 타이어 – 먼저 맞은 매가 먼저 낫는다

- [타이어] 전쟁에 따른 유가/운임 급등으로 투심 악화 vs 1Q 이익체력 견조
- 전쟁 지속되면 2H26 가격 인상 통한 비용 전가 예상 => 하방 우려 제한적
- 업종 내 Capa/물량 효과 독보적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선호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Earnings Preview]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보셔야 합니다

- 1Q26 예상 OP 5,089억(타이어 4,386억)으로 견조한 실적 전망
- 1Q 비수기에도 불구, 한국/유럽 외형 효과로 수익성 견인 예상
- 종전 지연된다면, 2Q26 저점 => 2H26 가격 인상 시점에 주목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Issue & News] 기아: 2026년 CID 리뷰: 시간이 해결해 줄 것

- CID 통해 실적 가이던스 및 Physical AI(로봇/자율주행) 전략 공유
- 시장 관심은 결국, Physical AI 관련한 '그룹사 내 기아의 역할' 이었음
- 그룹사 Physical AI 동행/이익체력 => 완성차 밸류갭 축소 지속 예상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미국과 이란 휴전 협상 대기, 경계 심리 속 균형점 탐색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기대 심리 후퇴
- 미국과 이란의 협상 앞두고 경계 심리 유입, 여전한 불확실성
- 주요 업종: 반도체, 소비재, 방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기대 심리 후퇴

전일 국내 증시 급등은 휴전 이슈와 숏포지션 청산에 따른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 현재 국내 증시는 숏 커버링에 따른 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 가운데, 주말사이 진행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반영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 협정을 발표한 상황 속 이스라엘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타격.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지지하지만, 레바논은 휴전 제외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은 상반된 입장을 보임. 이란은 휴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 미국의 대이란 총공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장의 주요 기대 요인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결국 무산되며 전날의 과도했던 기대감을 반납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로 유가는 상승했고, 위험자산 회피심리에 국내 증시와 중국 상해종합지수(-0.7%), 일본 니케이225(-0.7%) 등 아시아 증시 전반 약세

미국과 이란의 협상 앞두고 경계 심리 유입, 여전한 불확실성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첫 협상이 진행될 예정. JD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할 것이며, 이란 측은 9일 밤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계획. 한편, 미국은 이란이 제시한 10가지 제안을 비판하며 새로운 수정안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를 감안할 때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계심리가 잔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시점까지 미국의 함선과 병력을 그대로 대기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에 대한 총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유지

결국 주말부터 진행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잔존한 상황

주요 업종: 반도체, 소비재, 방산

경계심리 잔존하는 가운데, 전일 급등했던 기술주 하락. 방어주/내수주로 순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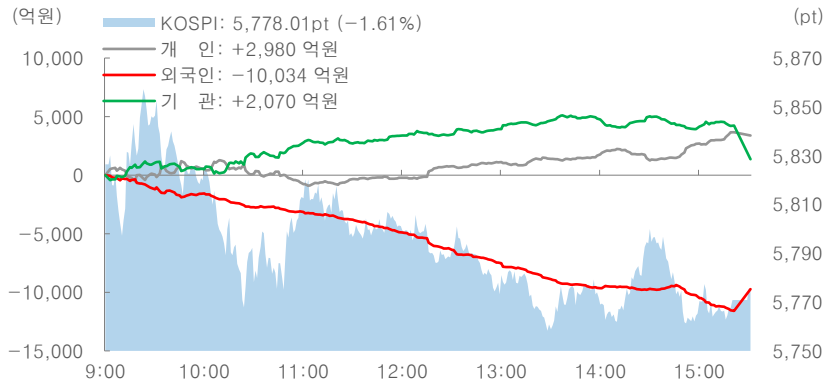
반도체: 삼성전자(-3.1%), SK하이닉스(-3.4%), SK스퀘어(-3.1%)

소비재: BGF리테일(+10.6%), 에이피알(+8.9%), KT&G(+3.0%)

중동 지역에서 긴장 수위 높아짐에 따라 방산 업종 강세

방산: LIG넥스원(+6.5%), 한국항공우주(+5.0%), 한화시스템(+5.0%)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다음주 시장은?

중동 리스크 완화 국면. 진통은 불가피

- 종전으로 나아가는 방향 = 비중확대 전략 &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술적 대응
- 매크로 지표 발표 및 통화정책 또한 변수
-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 불확실성을 상쇄할 요소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

종전으로 나아가는 방향 = 비중확대 전략 &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술적 대응

중동 지역의 물리적 충돌은 2주일간의 휴전 합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에 진입.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협상 전개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등락이 결정될 전망. 핵심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정상화 여부, 임시 휴전 이후로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미국과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협상의 조건 또한 상이하며 협상 결과 통행료 부과 현실화 등 이란의 해협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 종전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협상 과정에 따른 노이즈 불가피

매크로 지표 발표 및 통화정책 또한 변수

주말 사이 발표되는 미국 3월 CPI 컨센서스는 3.4%로 전월(2.4%) 대비 급등 예상.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솔린 등 물가에 즉각 반영된 영향. 14일 발표될 3월 PPI 또한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반영되며 소비자 물가 전가와 동시에 기업들의 마진 압박 우려 확대 가능

16일로 보도되고 있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가 이벤트 리스크로 작용.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적' 성향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양적 긴축에 대한 매파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 현 제롬 파월 의장의 법적 기소 논란과 연준 독립성 훼손 이슈도 케빈 워시의 인준 과정에서 노이즈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 중 일부의 이탈 조짐으로 인준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농후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 불확실성을 상쇄할 요소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코스피 선행 EPS가 811.5pt까지 상향조정, 5,800선 기준으로 선행 PER은 7.12배 수준에 불과. 현재 KOSPI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 선행 PER 저점인 7.4~7.6배마저 하회하는 Deep Value 구간에 위치

실적 전망은 상향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가와의 괴리는 확대. 그러나 매크로와 통화정책 등 대부분의 불확실성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꼬인 실타래와 같이 얽혀 있는 상황, 반대급부로 지정학적 충돌이 완화될 경우 빠른 반등이 가능한 이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실물경제 영향과 미-중 정상회담 일정,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등을 고려할 때 5월 이전 종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향후 경기/물가 불안을 반영하더라도 KOSPI 선행 PER 7배 초반 수준에서는 등락을 활용한 적극 비중확대 유효. 전략적 관점에서 종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집중하되 협상 과정에서의 노이즈와 단기 심리변동을 활용하는 전술적 대응 권고. 그동안 언급해왔던 수출주(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와 성장주/소외주(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이란 전쟁에서 벗어나는 안도랠리가 시작되다

- 미국-이란 2주간 휴전, 종전을 위한 큰 틀의 합의. 2주 안 세부 사항 논의
- 미국 타임라인대로 진행. 2주간 양국 신경전 벌일 것. 협상술 측면 의미 제한
- 증시, 안도랠리 시작. 장기 기대인플레 안정, 美 26.1/4분기 어닝시즌 기대

미국-이란, 2주간 휴전. 종전 협상을 위한 기간. 양국 간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종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

미국이 잠정적으로 제시한 종전일인 4.9일을 앞두고, 7일 미국-이란은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을 위한 타임라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이를 감안하면 2주간 휴전이 끝나는 시점이 22일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전제조건이 되는 이스라엘 수상(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훈장)을 위해서라도 종전을 서두르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다.

2주간 양국은 자국안을 최대한 수용시키기 위해 현재 바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신경전을 벌일 것이다. 이란은 휴전 시 약속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 간헐적으로 봉쇄와 개방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미국은 다시금 이란 내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양국간 긴장은 휴전 2주 동안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를 두고 종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보다는 동 상황을 양국간 협상술 정도로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 이번 미국-이란간 2주간 휴전의 의미는 양국 모두 휴전을 통해 종전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앞으로 2주 동안 종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선 합의-후 논의'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는 시작됐다. 이제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1. 전쟁 불구,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금융시장, 가계 · 기업), 2. 26.1/4분기 미국 어닝시즌 호실적 기대

현 글로벌 증시는 3월 이란 전쟁을 통해, 올해 상승 속도가 문제였던 동아시아 증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과열 부담을 크게 낮췄다. 현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19.8배로 5년 평균(19.9배)를 하회, IT 섹터의 12개월 선행 PER은 21.1배로 5년 평균(25.9배)를 하고 있다. 2.28일 시작된 전쟁 여파로 증시 하락, 변동성 확대라는 인내의 여정도 끝자락에 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이 시작된 단계는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된다는 판단이다. 전쟁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BEI, 미시건대, 애틀란타 연은 등)은 안정적이며, 4월 중순 진입하는 26.1/4분기 미국 어닝시즌은 호실적 기대를 높여줄 것이다.

S&P500 기업 가운데, 26.1/4분기 EPS 가이던스를 내놓은 110개 기업 중 59개가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과거 5년 평균 44개, 10년 평균 40개를 상회하는 수치로 21.2/4분기(66개) 이후 가장 높다. 26.1/4분기 S&P500 EPS 증가율 예상치는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로 25.12월 말 추정치(12.8%) 상회, 실적 주도 섹터는 IT(45.1% vs. 25.12월 말 추정치 34.4% 이하), 소재(23.9% vs. 24.8%), 금융(15.1% vs. 14.6%)이다. 23.1/4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가 예상된다.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에 접어든 현 시점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4월 안도랠리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Commodity

단기에 그칠 이란 전쟁, 다시 재개될 원자재 내 순환매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여전히 불안한 휴전, 합의 미이행(호르무즈 개방) 시 총공격 경고한 트럼프
- 그럼에도 단기 내 종전 유효, 양측 모두 실리 확보 시 군사 행동 철회 가능
- 재개될 원자재 순환매, 비철금속 비중↑ 에너지는 하락 시 저가 매수 권고

여전히 불안한 휴전, 합의 미이행(호르무즈 개방) 시 총공격 경고한 트럼프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휴전(2주)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지정학 리스크가 진정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관건은 종전을 위한 협상이다. 협상 과정에서 1)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결제 통화 문제)와 2)이스라엘-이란 대리 세력(레바논) 문제, 그리고 3)우라늄 농축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잡음은 불가피하다.

잡음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미국 측은 휴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총공격을 감행할 것이라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전쟁권한법(60일 내 종료)을 근거로 작전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지만 앞서 오바마는 리비아 전쟁 당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종전 합의 전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단기 내 종전 유효, 양측 모두 실리만 확보되면 철회할 군사 행동

그럼에도 여전히 단기 시나리오(4월 중)에 무게를 둘 것을 권고한다. 이번 전쟁의 본질은 러-우 전쟁처럼 영토(주권) 문제가 아닌, 철저히 실리(돈)를 위한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포기를 명분 삼고 있지만 이란은 개전 직전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공격했다는 것은 이를 지렛대 삼아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M/S 확보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연설에서 '중동산 에너지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고 언급했다. 전쟁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 인도 등과 에너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가 종전의 기점인 것이다.

이란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역시 미국이 수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란은 VLCC급 유조선에 200만달러를 부과하겠다며 전쟁 피해 복구비를 대신하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한 에너지 수입이 소량에 그친다.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이 지불할 비용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산 에너지와 경쟁하는 미국 입장에서 새로 신설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오히려 미국산 에너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줄 Key이다. 통행료 결제 통화가 중국 위안화만 아니라면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다.

재개될 원자재 순환매, 비철금속 비중↑ 에너지는 하락 시 저가 매수 권고

이론적으로 원자재는 유동성이 발생할 시 '귀금속→비철금속→에너지→농산물' 순으로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 연초만 하더라도 귀금속에서 비철금속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환매 구간이었지만 이란 전쟁이 에너지→농산물 사이클을 조기 도래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란 전쟁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단기 내 종료된다면 다시 비철금속이 주도하는 사이클로 회귀가 가능하다. 순환매가 재개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섹터별 선호도를 '비철금속 〉 에너지 〉 귀금속 〉 농산물' 순으로, 비철금속과 에너지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 에너지 섹터는 종전 시 하락하겠지만 순환매 주기(비철금속→에너지)를 감안해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Earnings Preview

자동차/부품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타이어:
먼저 맞은 매가 먼저 낫는다

- [타이어] 전쟁에 따른 유가/운임 급등으로 투심 악화 vs 1Q 이익체력 견조
- 전쟁 지속되면 2H26 가격 인상 통한 비용 전가 예상 => 하방 우려 제한적
- 업종 내 Capa/물량 효과 독보적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선호

이란 전쟁 타격을 가장 먼저 맞은 타이어

2/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글로벌 타이어 업체의 주가도 낙폭 확대. 유가/운임 급등으로 민감도 높은 타이어 업체 매력 축소 불가피했음. 종전 협상 기대감/가시성 높아지며 타이어 업체의 하방 우려 축소될 것으로 예상. 업종 내에서 전쟁에 따른 실적 타격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바, 종전 국면 지속된다면 가장 빠른 주가 회복 나올 수밖에 없을 것

1Q26 Pre: 불확실성 대비 현재 실적은 견조

한국/금호/넥센타이어 3사 모두 1Q26 영업이익 기준 컨센 부합/상회 예상. 업체별 물량 출하 양호했고, 타이어/원재료의 기존 재고효과로 긍정적인 스프레드 효과 예상. 특히, 한국타이어의 국내/유럽 판가 인상으로 P 효과 또한 양호했을 것. 종전 국면 지속된다면, 하반기 실적 가시성도 지속 높아질 것

한국타이어(컨센 부합): 1Q26 E 매출 5.3조(YoY +6%, 이하 YoY), OP 5,089억(+44%), OPM 10%. **[타이어]** 매출 2.6조원(+10%), OP 4,386억(+32%), OPM 17%, **[열관리]** 매출 2.7조(+2%), OP 971억(+361%), OPM 3.6%, OP 연결조정 -268억 반영(PPA 상각비)

금호타이어(컨센 상회): 1Q26E 매출 1.2조(YoY +1%, 이하 YoY), OP 1,500억(+2%), OPM 12%. 유럽 중심의 안정적인 판매와 환율 효과 겹치며, 2025년 화재 기저 부담에도 외형 성장 전망

넥센타이어(컨센 부합): 1Q26E 매출 8,468억(YoY +10%, 이하 YoY), OP 542억(+33%), OPM 6.4%. 1Q26 유럽/미국 OE 중심의 성장 예상

타이어 투자전략: 하방 우려는 제한적. 상방과 시점을 고민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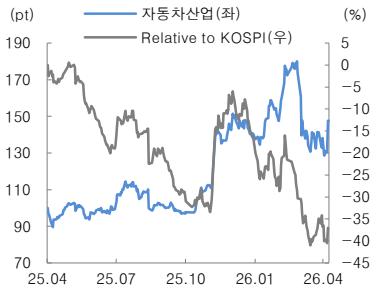
4월 종전 시, 실적 매력도 부각. 종전 지연 시, 2H26 가격 인상 주목할 필요. 유가/운임 상승에 따른 타이어 업종의 실적 부담은 불가피하나, 현재의 주가 레벨에서는 하방 우려 제한적이라 판단. 1) 4월 종전 기대와 함께 전쟁 우려 피크아웃 중이고, 2) 만약 종전이 미뤄지더라도 타이어 업종(필수재) 특성상, 2H26 가격 인상 통한 비용 상쇄 가능할 것이기 때문.

[종전될 경우] 견조한 실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전쟁 지속될 경우]** 2Q26 저점 => 2H26 타이어 판가 인상 시점에 주목할 필요. 업종 내에서 Capa/물량 효과 바탕으로 독보적인 이익 체력 시현중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BUY, TP 8.9만원)'을 지속 추천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Buy	89,000원(유지)
금호타이어	Buy	8,200원(하향)
넥센타이어	Buy	9,400원(하향)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5	9.7	51.1	62.8
상대수익률	-1.6	-14.9	-8.7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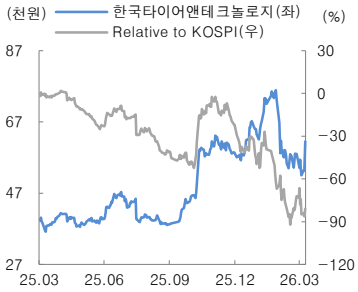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61390)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9,000 유지
현재주가 (26.04.08)	61,500 자동차업종

KOSPI	5,872.34
시가총액	7,61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3%
자본금(보통주)	6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5,900원 / 36,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31억원
외국인지분율	38.45%
주요주주	한국앤컴퍼니 외 22 인 43.19% 국민연금공단 8.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7	9.4	59.5	68.7
상대수익률	-1.4	-15.2	-3.6	-32.9



Earnings Preview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보셔야 합니다

- 1Q26 예상 OP 5,089억(타이어 4,386억)으로 견조한 실적 전망
- 1Q 비수기에도 불구, 한국/유럽 외형 효과로 수익성 견인 예상
- 종전 지연된다면, 2Q26 저점 => 2H26 가격 인상 시점에 주목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9,000원 유지

TP 8.9만원은 2026년 EPS 12,659원에 Target PER 7.1배(글로벌 피어그룹 평균 7.9배에 오너리스크 감안 10% 할인) 적용. 4월 이란 전쟁 종전 무드 지속됨에 따라 전쟁 우려 피크아웃 => 2H2 실적 우려 축소 예상. 1Q 실적 견조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평가 매력 재차 부각될 것. 만약, 종전 협상 지연된다면, 2Q26 저점(원가 부담↑) => 2H26 가격 인상 시점에 주목

1Q26 매출 5.3조(YoY +6%, 이하 YoY), OP 5,089억(+44%), OPM 10%

1Q26 OP 컨센/당사 추정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전망. [타이어] 매출 2.6조원(+10%), OP 4,386억(+32%), OPM 17%, [열관리] 매출 2.7조(+2%), OP 971억(+361%), OPM 3.6%, OP 연결조정 -268억 반영

1Q26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 한국/유럽 RE 중심의 안정적인 물량 효과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 특히, 1Q26 유로 환율 효과와 함께 한국/유럽 가격 인상 진행하며 외형 견조했을 것으로 예상. 2H25 안정화됐던 원재료 가격 반영되며 우호적인 스프레드 효과 예상. 2~3Q내 미국 반덤핑 관세 환입 일회성 추가 반영(3~400억원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쟁 지속되더라도 하방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	추정치	YoY	QoQ	Consen	추정	YoY	QoQ
매출액	9,412	5,456	5,289	5,252	5.8	-3.7	5,222	5,680	5.8	8.1
영업이익	355	547	540	536	51.1	-2.0	493	575	62.7	7.4
순이익	320	197	324	328	2.5	66.1	328	356	95.6	8.6

자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배,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9,412	21,202	22,506	23,952	25,860
영업이익	1,762	1,841	2,377	2,696	3,212
세전순이익	1,574	1,439	2,074	2,424	2,965
총당기순이익	1,131	972	1,493	1,818	2,223
지배지분순이익	1,115	1,089	1,568	1,909	2,235
EPS	8,998	8,795	12,659	15,410	18,043
PER	4.3	6.6	4.9	4.0	3.4
BPS	89,609	97,723	108,203	121,237	136,413
PBR	0.4	0.6	0.6	0.5	0.5
ROE	10.8	9.4	12.3	13.4	14.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ssue & News

기아 (000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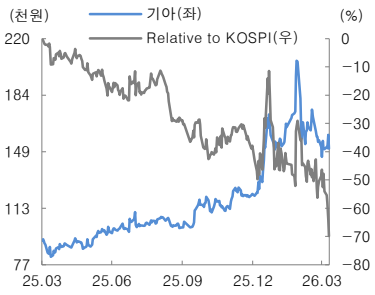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40,000 유지
현재주가 (26.04.09)	150,500
	자동차업종

KOSPI	5778.01
시가총액	58,75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77%
자본금(보통주)	2,13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6,000원 / 82,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071억원
외국인지분율	38.70%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4 인 36.99% 국민연금공단 6.7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	13.0	44.4	79.6
상대수익률	-10.8	-10.3	-11.3	-28.7



2026년 CID 리뷰 : 시간이 해결해 줄 것 (+QnA 전체 요약)

- CID 통해 실적 가이던스 및 Physical AI(로봇/자율주행) 전략 공유
- 시장 관심은 결국, Physical AI 관련한 '그룹사 내 기아의 역할' 이었음
- 그룹사 Physical AI 동행/이익체력 => 완성차 밸류갭 축소 지속 예상

기아 2026년 CEO Investor Day(CID) 주요 내용

1) 판매 가이던스: 2030년 전체 판매 413만대/EV 100만대/HEV 115만대/ICE 198만대 제시. 2025년 CID 당시 발표(전체 419/EV 126/HEV 99만대) 대비 전체 판매 소폭 하향됐으나, HEV 가이던스는 확대. 지역별로는 미국 102만대/유럽 75만대/신흥국 148만대 판매 계획하며, 미국/글로벌 점유율을 6% 이상 끌어올릴 계획

2) SDV/PBV 전략: 연초에 취임한 박민우 사장이 발표 진행함에 따라 시장 관심 가장 컸음. 현대차그룹은 2027년 SDV 페이스카 개발 => 2028년 Lv2+ 양산모델 적용 => 2029년초 Lv2++ 상용화 본격화 계획. 1) 글로벌 파트너십 통한 양산 적용/현실데이터 수집 가속화(Data Union 구축), 2) 파트너십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자체 E2E 자율주행 모델 강화하며 투트랙 전략 활용 계획

3) 로보틱스(Boston Dynamics): HMG 내부 수요 2.5만대 대응하고, AI 인프라/인재 투자($5억), RMAC 등 통해 대규모 현장 데이터 수집 계획. 구글 딥마인드/엔비디아와 AI 파트너십 통해 두뇌 고도화 계획. 이를 통해 1)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시장에 PV5 + 스트래치 + 스팟 활용한 통한 솔루션 제공하고, 2) Atlas 휴머노이드를 공장 내 시퀀싱/조립 공정에 활용할 계획

4) 재무 가이던스(유지): 2030년 가이던스 매출 170조/OPM 10%로 기존 중장기 가이던스 유지

주요 QnA: 결국 Physical AI(SDV/PBV) *본문(p.4) QnA 전체 요약*

1) 이란 전쟁에 따른 비용 부담: 3개월 이상 장기화 여부가 관건. 중동 지역 판매 노출은 타지역 배분 통해 상쇄. 주요 시장 판매가 기존 가이던스 대비 상회, 환율 상승으로 원재비 상승 상쇄 => 26년 가이던스 달성에 부담 제한적

2) AVP/42dot/엔비디아 협력 간 사업역할: [AVP/42dot] HW + SW + AI 통합 개발, [엔비디아] SoC + OS 제공하는 구조로 투트랙 전략에 활용중.

3) 자율주행 경쟁력(엔비디아 협력 시, 차별화전략): 데이터 확보 속도 중요한 시점. 대규모 데이터 수집 가속화하고 이것을 자체 자율주행 모델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확보해 나갈 계획

4) 자체 자율주행 기술의 강점/약점: 기능/시스템 기술은 상당히 진척. SW 빌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보완 필요할듯

5) BD 양산계획 디테일: 2028년 양산 본격화. 수요처에 따라 미국/한국 생산. 2030년 Capa 3만대 확보해 내외부 고객 대응 계획

투자 판단: 기대 대비 SDV 가속화 포인트 제한된 채 이벤트 모멘텀 소멸

AVP 사업부/42dot 박민우 사장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외부 공식 PT.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전략계획 가속화 => 단기 리레이팅 포인트로써 기대. 기대 대비 가시적인 전략 가속화, 구체화된 전략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단기 리레이팅 포인트였던 이벤트 소멸. 1) 현대차그룹 Physical AI 전략과 동행 + 2) 견조한 이익체력 매력 지속 확인되며 현대차 대비 할인율 지속 축소해 나갈 것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